

세종시설공단 조소연 이사장도 “두 기관이 함께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

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” 고 전했다.

김형렬 행복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“테크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동캠퍼스가 지식과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” 이라며, “앞으로도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한편, 세종공동캠퍼스 임대형 캠퍼스에는 국립한밭대학교·서울대학교·충북대학교·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(KDIS)이 입주를 완료하였고, 충남대학교는 '25년 8월 입주를 준비중에 있다. 분양형 캠퍼스에 공주대학교·충남대학교·고려대학교(세종)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예정으로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대학과 함께 지역 산학연 클러스터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세종시설공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세종시 4차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‘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’, ‘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센터’ 등 첨단기술 산업 관련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. 현재 11개 호실에 대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,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. 공단은 정보보호, 미래모빌리티 등 세종시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,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-행정팀	책임자	팀 장	김윤미	(044-251-8011)
		담당자	사 원	전예진	(044-251-8014)
	세종시설공단-임대사업팀	책임자	팀 장	정순점	(044-850-1370)
		담당자	사 원	이연이	(044-850-1376)



왼쪽부터 ▲행복청 도시계획국장 김효정, 세종시설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임윤빈,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조소연, 행복청장 김형렬,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 한석수,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기술지원팀장 이범신



왼쪽부터 ▲세종시설공단 이사장 조소연, 행복청장 김형렬,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 한석수